

육계경기 회복, 범 업계적인 차원의 생산 감축 노력에 달려있다

- 반사이익 챙기려 참여율 저조 -

◇ 취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1. 종계 감축사업의 의미

지난 6월부터 육계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밀돌면서 육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종계 생산 잠재력이 600만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견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업계 공동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본회는 농림부, 농협중앙회, 계육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난 8월 3일부터 40일간 50만수의 종계를 조

기도태기로 하고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종계도태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종계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월별로 도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종계도태 장려금은 11개월령 부터 30일 단위로 차등 지급기로 하고, 종계의 일령은 도계일을 기준으로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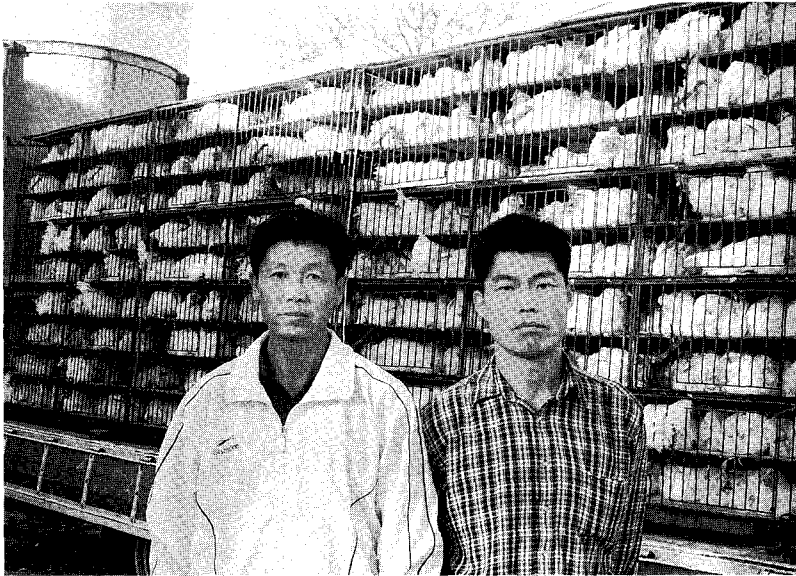
▲ 종계 도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승현농장 전경

정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종계인들은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육계불황타개를 위해

표1. 일령별 도태 장려금 지급액

일령	11개월령	12개월령	13개월령	14개월령
일령	~360일령	361~390	391~420	421~450
장려금	2,000원	1,500	1,000	500



▲ 종계 감축으로 육계불황 타개의 의지를 보이는 류만하(조인바이오) 부장(우)과 방익수 농장장(좌)

의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시행 초기에 병아리 가격이 일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종계도태 참여가 다소 부진했고, 계열업체들의 참여율이 낮았던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종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도태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으며, 종계도태로 인한 산란노계 출하지연에 따라 채란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참의 뜻을 나타냈으며, 계열업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종계도태가 이루어지기 전 농림부는 본회와 계육협회를 시행업체로 선정하고 보유한 종계장의 비율을 산정해 본회와 계육협회에서 각각 30만수와 20만수를 나누어 처리하기로 사전 약속을 하였다.

따라서 지난 9월 4일 조인바이오(대표 한재권)는 송탄농장 6,010수를 시작으로 도태에 들어가 지난 10월 12일까지 총 40만7,599수로 50만수계획중 82%의 도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중 본회에 의뢰하여 종계를 도태한 수수는 25만1,038수로 목표량(30만수)의 84%를 기록하였으며, 계육협회를 통해 도태한 수수는 15만6,561수로 목표량(20만수)의 78%를 보였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8%가 미흡한 실적으로 추석 이후 신청물량이 쇠도하면서 50만수

일도 발생하였다.

2. 종계 감축 현장

지난 10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소재 조인바이오 승현농장(농장장 방익수)에서는 59주령(13개월) 된 종계 11,836수의 도태작업이 이루어졌다. 노계처리 작업장은 여수에 있는 (주)유진으로 2일에 나누어 8대의 차량이 동원되었다. 이송차량이 도착하기전 조인바이오 류만하 부장과 농장장인 방익수씨의 직원들이 닭 수송을 원활히 돕기 위해 출입구를 넓게 터주는 작업이 한창이었으며, 6명으로 구성된 닭 상차반원들이 수송차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인바이오는 본 사업 초기에 이미 송탄농장에서 2만9,014수(12개월령)를 두차례에 걸쳐 도태에 참여하였으며, 이번에 나머지 물량

을 처리하게 되면서 조인바이오에서는 총 4만 1,628수(전체물량의 10%차지) 물량을 처리하였다.

승현농장은 3년전 조인바이오에서 위탁사육농가로 지정되어 기존의 시설에 환기시설을 완벽하게 교체하고 단열을 보완한 이후 좋은 성적을 보이는 농장이다.

이번에 도태된 계군은 33주에 93%의 피크를 기록할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으며, 경제주령인 64주령까지 도태를 시키지 않을 경우 종계 1수당 종란 생산수가 175개, 병아리 생산수가 140개를 기록할 정도로 타 농장들에 뒤지지 않는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도태를 할 필요가 없는 계군이였다. 또한, 4개동에서 생산을 해온 1만2,000수의 계군은 59주 현재 55%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어 11월까지의 충분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던 계군으로 11월까지 1달동안 사육된다고 가정할 때 12만수 정도의 실용계 감축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승현농장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육계산업 불황을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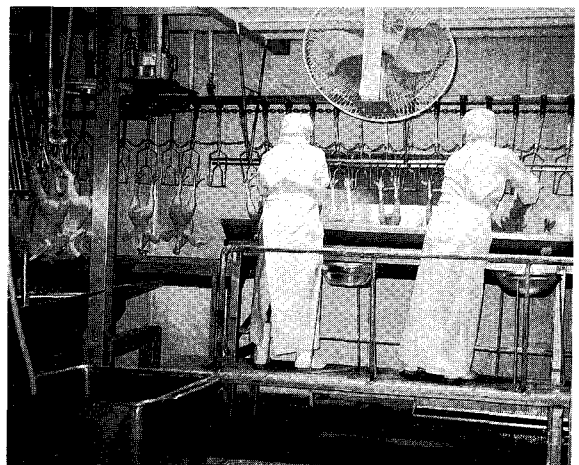
주기 위해서이며, 특히 병아리 가격이 장기간 낮게 형성되면서 조기에 도태시키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조인바이오(전 강남농장)에 몸을 담은 이후 현재 종계 25만수와 실용계 35만수를 관리하고 승현농장도 함께 책임을 맡고 있는 류만하 부장에 의하면 이번 사업이 취지에 걸맞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계열업체들의 참여와 앞으로의 감축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를 내비쳤다.

2일간의 작업을 통해 전문인력 6인이 1차(약 1,200수)에 상차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였다. 상차된 종계는 인근 계근장(안성의 I계근소)에서 계군을 하고 도계장인 여수로 이동 한후 도계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3. 종계감축 효과 분석

이번 종계감축에 참여한 농가수는 조인바이



▲ 상차된 닭들은 인근 계근장(좌)을 통해 도계장(우)으로 이동된다.

오 승현농장을 포함한 20개 일반농장과 하림을 포함한 5개 계열사가 참여하여 총 40만 7,599수가 도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농장에서 25만1,038수(62%)가 계열사에서 15만6,461수(38%)가 각각 도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746만여수의 병아리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에서 농가에 지급된 종계도태 자금은 4억8,200여만원에 이른다.

가장 일령수가 낮은 계군은 하림 부안농장에서 금년 5월 7일 입추된 1,120수로 산란에 들어가지 않은 종계가 도태되기도 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2일간에 걸쳐 종계를 출하한 대원농장(대표 이원재)에서는 성적이 양호한 45주령 된 1만7,117수의 종계를 도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병아리 생산감축 효과를 볼때 계열사들 보다 일반농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도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계도태로 인해 감축되는 실용계 병아리수는 전체 746만6,953수로 일반농가가 591만4,514수(79%), 계열사가 155만2,439수(21%)로 전체 병아리 감축 효과는 일반농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열사는 자연 도태에 임박한 계군들을 주로 처리한 듯한 인을 내비춰 실제적인 감축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때 14개월에 도태한 종계수가 12만5,025수(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 10만3,711수(26%), 12개월 8만3,702수(21%), 11개월 7만6,924수(19%), 9개월 1만7,117수(4%), 5개월 1천120수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도 도태에 임박한 계군들의 비중이 커 병아리 감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종계감축으로 줄어들 병아리 감축수수를 월별로 보면 10월 350만4,287수, 11월 219만8,141수, 12월 110만6,167수로 대부분 3개월내에 전체 감축수의 93%가 감소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20여만수정도씩 줄어 내년 6월까지 미미한 감축효과를 가져오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출근기를 보면, R품종의 종계사육지침서에 의해 13개월령 종계는 64주까지 수당 10개의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으며, 12개월 종계는 수당 25수, 11개월 종계는 수당 38수의 종계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9월과 10월에 도태된 종계수수는 13만2,088수와 11만4,740수로 비슷한 비율로 각각 도태되었으므로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칠 11, 12, 13개월령의 병아리 감소는 10월부터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계산은 64주령까지 사육하고 환우하는 조건으로 계산했으므로 종계의 만연된 환우계로 인한 연장사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때, 실제 병아리 감축수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질병에 의한 자연도태분이 합산될 경우 감축효과에 따른 파장은 이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계도태로 인한 병아리 감축 효과는 전체적인 종계인 및 계열사들의 참여 의식 결여와 기대 이하의 병아리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회에서 발표된 육용실용계 생산 잠재력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각각 37,760천수,

39,281천수, 40,909천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종계 감축으로 실용계 생산 잠재력이 10월에는 9.3% 감소한 34,256천수, 11월에는 5.5% 감소한 37,083천수, 12월에는 2.7% 감소한 39,794천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동안의 평균 잠재력(10월-31,434천수, 11월-32,474천수, 12월-33,215천수)보다 각각 8.9%, 14.1%, 19.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파잉생산의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병아리들은 11월 중순부터 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말의 소비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닭고기 가격의 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힘들며, 사양가들은 입식자제와 스스로의 종계감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육계불황을 극복할 것으로 본다.

현재 경제주령을 넘긴 환우계들이 모두 도태된다고 해도 어려운 때이니 만큼 종계인들이 충지를 모아 스스로 감축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만이 육계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계열사와 종계인들의 책임이 우선 크다 하겠다.

일부 종계장들은 아직도 도태를 할까말까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발적인 도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관심과 스스로의 감축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태작업의 의의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 정부에서 양계분야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는데 있으며, 앞으로는 육계뿐만 아니라 채란계 분야에도 소외됨이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인 노력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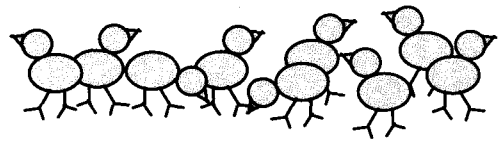
종계를 강제환우하면...

종계를 더욱 장기간 사용하여 환우 후 초생추의 생산원가를 150원까지 절감할 수는 있으나 ...

생산되는 초생추의 가금티푸스

양성율이 높아지고

식란의 살모넬라 오염율을 높입니다.



강제환우하지 않는 부화장...

다음 부화장에서는 종계를 강제환우 하지 않습니다.

△ 대구경북양계축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봉산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신진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양지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한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Hy-Line®